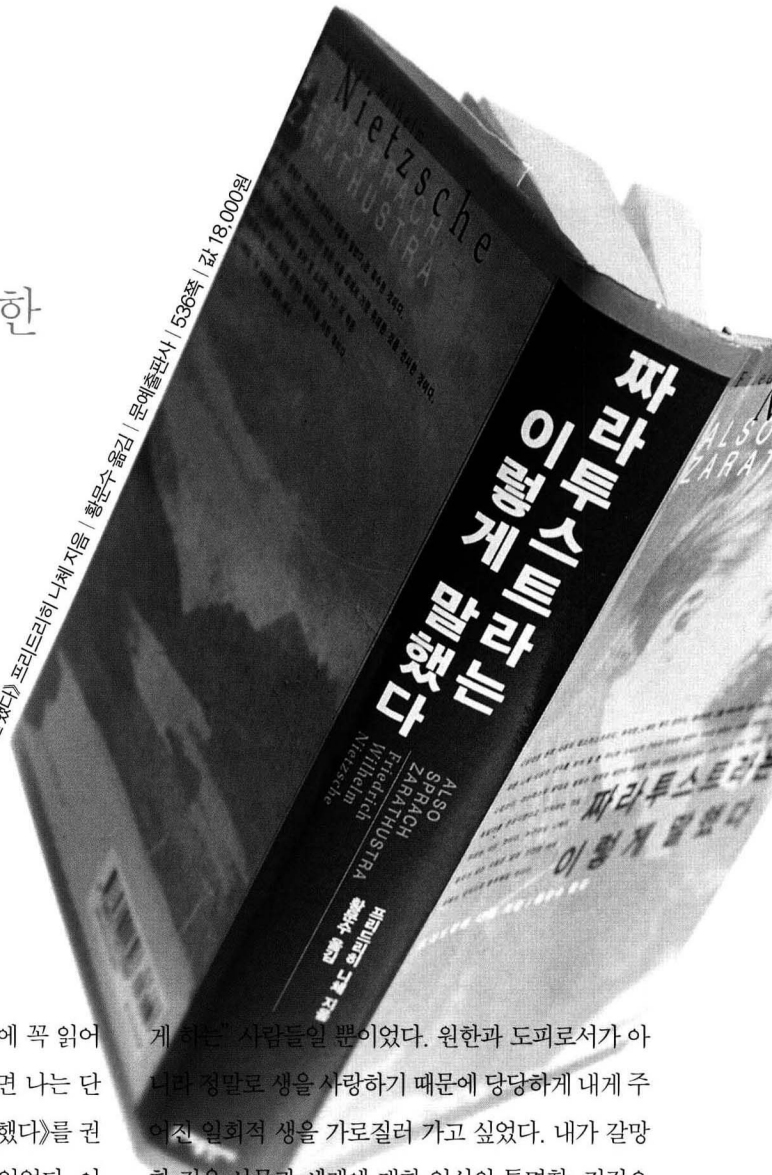


열아홉 살 적 _____ 창조와 생성의 세계로 나를 인도한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 황문수 옮김 | 문예출판사 | 536쪽 | 값 18,000원



세상에 읽어야 할 책은 많지만 청소년기에 꼭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권하겠다. 나는 이 책을 열아홉 살 때 처음 읽었다. 이 책과 처음 만나던 순간 내 영혼은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듯 타는 고통과 희열을 함께 느꼈다. 내가 그때 현란한 상징과 은유의 숲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책으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 이 책과 만난 건 하나의 운명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일찍이 삶의 매마름을 보아버린 자의 환멸 속에서 혈떡거리며 헤매던 내 정신은 삶에 내장된 그 지독한 통속과 더러움에 심한 멀미를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고무줄이 머리를 동여맨 듯 두통이 떠나지 않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고작해야 비참의 실감을 가르치는 학교이거나 가축의 무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우매한 대중들, 아니면 '나쁜 도덕의 교사들' 뿐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도는 말들을 녹음기처럼 반복하거나(이를테면 "생은 고통일 뿐이다"라는 말 따위), "무엇을 악이라고 비난하는가만 알려주고, 공포를 줌으로써만 악을 피하

게 하는' 사람들이일 뿐이었다. 원한과 도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일회적 생을 가로질러 가고 싶었다. 내가 갈망한 것은 사물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투명함, 진정으로 자기가 된다는 것, 주체의 도덕 등이었다.

●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의 수수께끼에 부딪힌다. 입 속으로 들어오는 뱀 대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견디기만 하는 자는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영원히 "변신한 자, 빛으로 감싸인 자"가 될 수 없다. 뱀 대가리를 물어뜯는 자만이 변신한 자, 환하게 "창조적인 번개의 웃음"을 웃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우화에서 목동의 목구멍으로 밀려들어온 이 뱀 대가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게 수수께끼다. 이미 수수께끼의 답은 그 우화 속에 깃들여 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고 있던 한밤중, 그 가장 고요한 시간에 '짜라투스트라여, 너는 더 무르익어야 한다. 너는 네 열매를 거둬들일 만큼 익지 않았다' 라는 환청에 빠지곤 했다.

●
스스로는 정신적으로 고양된 존재라는 자긍심으로 짝 차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나는 실업계 고

등학교를 다니다가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와 시나 끄적거리며 세상을 떠도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었다. 명절 같은 때 친척들이 모이면 나의 초라한 전락이 단연 화제가 되곤 했다. 사람들은 내놓고 나를 경멸하고 업신여겼다. 나는 이미 그들과 보편적인 신념을 공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정규교육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매우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이다. 길들여지기를 거절하는 자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법, 제도, 도덕, 관습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말 그대로 '내 동댕이쳐졌다'. 나는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버린 꽃과일이었다. 그때 짜라투스트라는 치욕 속에서 흠에 얼굴을 문지르고 있던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나 홀로 나의 길을 가련다. 너희들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 갈 길을 가라!" 이런 구절에 밑줄을 그으며 읽을 때 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영혼의 현기증 같은 걸 느꼈으리라. 지금 돌이켜보면 내 열아홉 살이란 그 누구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만의 삶을 창조하기 위한 '요람과 해산의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나는 짜라투스트라와 나 스스로를 동일시했다. 짜라투스트라가 자신을 반쯤은 난쟁이며 반쯤은 두더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 역시 그랬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몸쓸 병에 지쳐 있는 병자와 같았으며 고약한 꿈에 놀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병자와도 같았다." 하지만 짜라투스트라가 삶이라는 질병을 끝내 떨치고 일어섰듯이 나도 온갖 의무와 명령의 그물 속에 포박되어 있는 내 삶을 자유로 견인해 내며 일어섰다. 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정과 원한을 통해 대긍정, 즉 창조와 생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법이다. 어쩌면 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오독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나는 오독도 역시 그 책을 자기것화하는 수많은 방식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하나의

거대한 봉우리다.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초판을 겨우 40부밖에 찍을 수 없었다. 이 불우한 운명의 책에 대한 해석은 지난 백 년 간 수없이 다양한 독자들과 해석을 낳았다. 천 개의 봉우리와 천 개의 심연을 가진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천 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 방식이 천 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이 책을 읽지는 않는다. 삶을 사랑하고 추악과 허위의 더러움으로 얼룩진 세상을 끌어안을 용기와 대긍정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책을 읽는다. 그래서 니체는 이 책에 "만인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이란 부제를 달아놓았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씩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곧 정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 구절은 읽는 순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내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렸다. 무언가를 쓰는 자로 한 세상을 건너가기로 마음먹은 자에게 이 구절은 벼락치듯이 다가왔다. 나는 세상에 너무 일찍 온 자로서 어쩔 수 없이 구박과 고립에 빠졌던 짜라투스트라와 운명을 공유하는 느낌을 가졌다. 나는 시간을 건너뛰어 미래를 내다 봤다. 아직도 나는 "미래의 아들들" 중의 한 사람이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내가 얻은 것은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였다. **【**】**



이 글을 쓴 장석주는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청하출판사 편집인·발행인을 역임했고, 이후 계속해서 책 만드는 일을 해왔다. 청하출판사 시절에 계간 《현대시세계》와 《현대예술비평》을 펴내며 기획과 편집을 맡았고 월간 《현대시》, 계간 《시인세계》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며 신문과 잡지 등에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현재 동덕여대 인문학부 문예창작과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햇빛사랑》, 《완전주의자의 꿈》, 《그리운 나라》, 《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를 비롯해 다수의 시집을 냈으며 최근 독서일기 형식의 《강철로 된 책들》을 출간했다.